



'트라피체 140주년 기념 와인, '메달 수상자' '

메달라 센테너리 시리즈

Medalla Centenary Series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90%

말벡 5%

카베르네 프랑 5%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짙은 레드 컬러의 와인으로, 오크 숙성을 통한 토바코, 향신료, 후추와 같은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팔렛에서는 뛰어난 구조감과 복합미가 돋보이며 긴

여운<mark>을</mark> 남긴다.

페어링 TIP 붉은육류/부드러운치즈/단단한치즈/밀가루음식(피자,파스타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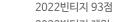
DRY SWEET LIGHT FULL 당도 1 2 3 4 5 바디 1 2 3 4 5

제품설명



메달라 센테너리 시리즈'는 트라피체의 대표 와인 메달라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와이너리 설립 140주년(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출시되었다. 'Medalla'는 '메달 수상자'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세계 굴지 여러 시상식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상한 트라피체의 훌륭한 와인을 상징하고자 '메달 수상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완성된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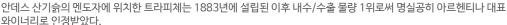
수상내역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3점 2021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0점

와이너리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